

자아존중도와 생활만족도가 의복행동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령 및 성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강사 김순구

目 次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1. 자아존중도와 의복행동
 - 2. 생활만족도와 의복행동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측정도구
 - 2. 조사 대상 및 자료분석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인구통계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의 의복행동과의 인과관계
 - 2. 연령과 성의 의복행동에 대한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 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I. 서 론

의복은 인간의 성격, 가치관, 태도, 자아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이 의복의 사회심리적 측면을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Ryan은 자아개념을 신체적 자아개념과 사회적 자아개념으로 나누었고 신체적 자아개념은 의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개인의 신체적 자아가 위축될 때에는 의복을 통한 자아증진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적 자아는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아에 대한 개념에 따라 역할과 행동

이 달라지고 의복행동에도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였다.¹⁾

자아개념은 개념적 이해로서 질적인 평가가 요구되는 인지활동이지만 자아존중은 대상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방향이 설정되는 양적 특질을 갖고 있으므로 평가적 척도로서의 자아존중이 행동에 주는 영향은 지대하다.

성인의 욕구와 의복가치관과의 관계에서 Maslow가 분류한 5단계 욕구 중 자아존중의 욕구는 이론적, 경제적, 사회적, 감각적, 종교적 가치관과는 부적상관을 가지며 심미적, 정치적, 탐구

1) 이인자, 복식사회심리학, 서울 : 수학사, 1985, p.228~234.

적 가치관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여 자아존중의 욕구가 의복가치관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자아존중도는 흥미성, 심리적 의존성, 심미성, 관리성, 유행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도 하였다.

노년기의 자아지각을 긍정적인 집단과 부정적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 정도에 따라 의복행동을 보았을 때 자아지각이 높은 집단일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나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 의복의 유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어느 연령층에서나 자아존중도가 의복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으로 여겨진다.²⁾

심리적 변인인 자아존중도가 의복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자아존중과 관련이 높은 생활만족도가 의복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적 변인으로서의 생활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연구는 많지 않으며 생활만족도수준의 결정요인은 경제적 수준, 사회적 활동, 건강상태, 가족내의 역동적 관계이고, 의복만족도가 생활만족도와 관련되며 의복관심과도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은 성, 수입, 교육, 결혼상태, 사회적 활동 등이며 심리적 요인으로는 자아존중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따라서 자아존중도가 의복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이라면 생활만족도도 의복행동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인구통계적 변인과 의복행동에 영향을 주는 인구통계적 변인이 유사한 변인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관련을 알아보므로 의복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심리적 변인을 규명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자아존중도와 의복행동간의 관련성이 연령에 따라 연구되어져 있으나 연구된 의복행동변인들이 일부 측면만을 다루고 있으며 각 대상에 따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연구가 많지 않아 관련성의 규명이 미흡한 실정이고, 특히 생활만족도와 의복행동의 관련성을 암시해 준 선행의 연구가 있으나 극히 적은 실정이므로 심리적 변인으로서의 자아존중도와 생활만족도가 의복행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이들 모두와 상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인구통계적 변인과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의복행동변인에 있어서는 선행의 연구들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변인들 중에서 의복행동을 다각적 측면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하위변인을 선별하여 의복중요성, 흥미성, 동조성, 정속성, 심리적 의존성, 심미성, 관리성, 유행성, 의복만족도의 9가지로 하였다.

대상에 있어서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노인으로 하였는데 이는 성인들이 자기의 의생활을 본인의 주관에 따라 하는 시기이며 이때부터 사회적 활동이 왕성해져 의복행동의 모든 하위변인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특징을 나타낼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특히 성인과 노인은 생활주기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때이므로 이를 분류하여 다루게 되었다.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의복행동의 남·녀간 차이가 성인기에서 노인기로 바뀌게 됨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성인과 노인이라는 연령과 남·녀의 성에 따라 상호작용적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적 변인이 의복행동 변인에 미치는 인과성을 알아본다.

둘째,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가 의복행동 변인에 미치는 인과성을 알아본다.

셋째, 연령과 성의 의복행동에 대한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본다.

2) 임숙자·임치진, 노년기 여성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간의 상관성 연구, 한국복식학회, 10, 1985, p. 51-62.

II. 이론적 고찰

1. 자아존중도와 의복행동

자아존중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써 자아존중도가 높은 사람은 대체로 그들 자신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측면의 인식을 피하기 위한 방어기제로서 억압과정을 사용하며 자기 자신이 가치있고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자아존중도가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 열등감이나 불확실감을 갖게 되어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피적인 성향을 지니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설정하여 변명할 구실을 찾거나 심리적 위안을 느끼게 하고, 또는 지나치게 낮은 목표를 쉽게 달성하여 만족을 느끼려는 경향을 지닌다고 한다.

이러한 자아존중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 교사, 친구와 같은 중요한 타인들의 태도, 자신의 역할에 대한 타인의 인정, 가정의 가치지향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자아존중은 Maslow의 기본욕구단계에서는 높은 차원의 욕구이며 자신감과 열등감, 자신에 대한 불확실감 등과도 관계하는 것으로 자아존중의 정도에 따른 의복관심과 의복선택에 관련이 있음을 선행연구들^{3)~10)}에서 볼 수가 있다.

Ryan에 의하면 의복은 신체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아존중과 타인으로부터의 수용을 조정하는 수단 중의 하나이고 외모상의 개성은 자신감과 개인적인 확신의 표현이라 하였다.³⁾

성인과 노인의 자아존중과 의복행동과의 관련을 다룬 연구를 보면, 성인 남·녀를 연구한 본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서는 성과 교육이 자아존중에 영향을 주어 흥미성, 심리적 의존성, 심미성, 관리성, 유행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이경손은 성인 남성에 있어서 종자아공정과 의복만족도와는 정적상관임을 밝혔고,⁵⁾ 김소연·조필교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집단은 개성과 경제성을 중시했고 부정적인 집단은 동조성을 중시했음을 지적하였다.⁶⁾ 도시주부를 대상으로 한 손문경은 사회·경제적 계층이 높을수록 자아실현성이 높았으며 자아실현성이 높은 주부일수록 의복의 개성과 정적관계이며 동조성과는 부적관계를 밝혔다.⁷⁾ Holloman, L.O.는 의복은 자아존중도에 영향을 주며 자아존중도는 의복에 영향을 주어 의복과 자아존중도의 상호관련을 보고하고 있다.⁸⁾

임숙자는 노년기 여성 연구⁹⁾에서 자아에 대한 긍정적 지각을 할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 유행에 대한 관심과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이 높게 나타났다. 강경자·서영숙은 Maslow욕구단계에서 자아

3) Ryan, M.S., *Clothing :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6.

4) 김순구,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고교생 남·여 비교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5) 이경손, 성인남자의 자아개념과 의복행동과의 상관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79.

6) 김소연·조필교, 성인여성의 의복선택행동과 관련 변인 연구—자아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2(2), 1988, p.159~167.

7) 손문경, 도시 주부의 자아실현성과 의복의 개성—동조성 변인간의 관계—서울, 부산시 주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8) Holloman, L.O., *Self-esteem, Locus of Control and Demographic Variables as Influencing Factors on the Clothing of Black People*, A dissertation Doctor of Philosophy. Michigan State University, 1981, p. 126~133.

9) 임숙자·임치진, Ibid., p.51~62.

존중의 욕구가 모든 의복가치관에 영향을 주어 자아존중욕구가 의복가치관 결정에 가장 중요한 인자임을 보여주었다.¹⁰⁾

이상과 같이 성인과 노인의 의복행동 연구에서 같은 심리적 변인으로 비교를 한 연구가 많지 않아 연령에 따른 정도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며 특히, 남·녀를 비교한 연구를 거의 볼 수가 없으므로 성별차이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2. 생활만족도와 의복행동

생활만족(life satisfaction)이란 한 인간이 갖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의 살아온 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을 말하며 Newgarten과 그의 동료들에 의하여 구성된 다섯 가지 요소는 1) 현재 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활동으로부터 얻는 즐거움 2) 본인의 인생을 의미있는 것으로 여기고 지금까지의 생활에 대한 절대적 수용, 3) 바라던 목적과 성취한 목적간의 일치를 이루므로써 인생의 주요목적의 달성하였다는 감정, 4) 긍정적인 자아상, 그리고 5) 행복 및 낙관적인 태도와 기분에 대한 유지이다.¹¹⁾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은 성, 수입, 교육, 결혼 상태, 사회적 활동 등이며 특히 노인층에 있어서는 건강, 가족형태, 사회적 활동이 주요인자로 밝혀지고 있다.¹²⁾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재정적인 조건이 생활만족도에 더 많이 관련되며 노인의 경우

는 경제적인 조건보다 건강이 더 영향을 주고 가정내의 역동적 관계에도 영향을 받으며,¹³⁾ 장상희는 이러한 생활만족에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변인을 자아존중으로 밝혀 자아존중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생활만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¹⁴⁾

생활만족도와 의복행동간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로서는 노인층 여성의 의복행동을 다룬 유경숙의 연구¹⁵⁾를 들 수가 있으며 이에 따르면 생활만족도 수준의 결정요인은 경제적 수준, 사회적 활동, 건강상태, 가족내의 역동적 관계이고 의복만족도에 영향을 주며, 생활만족도는 의복관심과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1) 자아존중 척도

Holloman, L.O.(1965)에서 Gutteman Scale의 재생계수가 0.92이고 2주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 측정한 test-retest 상관계수가 0.85로서 신뢰성이 검증된 Self-esteem Scale 10문항을 Likert식의 5점 척도로 사용하였다.

2) 생활만족 척도

Lillian, O.H.(1981)에서 사용된 7문항을 번안하여 의류학 전공 교수님과 10명의 의류학전공 대

10) 강경자·서영숙, Maslow의 기본적 욕구가 의복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를 학회지, 13(1), 1989, p.1~12.

11) 장상희, 대도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부산시 대상으로-, 부산대학교 사회조사연구, 1, 1983, p.49~64.

12) Kyriakos, S.M. & Harry W.M., A Causal Mod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 of Gerontology, 34(1), 1979, p.86~93.

13) Spreitzer, E. & Snyder, E., The Relative Effects of Health and Income on Life Satisfaction, The International J.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0, 1979, p.282~288.

14) 장상희, Ibid., p.49~64.

15) 유경숙, 노인층 여성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서울·광주거주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학원생에게 문항의 적합도를 검토받아 Likert 식의 5점 척도로 사용하였다.

3) 의복행동 척도

의복행동변인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사용되어진 것 중에서 본 연구의 의복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여겨진 9가지를 선택 하였다.

Creekmore(1966), 강혜원(1974), 최혜선(1981), 박은주(1984), 김순구(1985)에서 의복중요성 6문항, 흥미성 10문항, 동조성 8문항, 정숙성 10문항, 심리적의존성 9문항, 심미성 11문항, 관리성 9문항, 유행성 10문항씩을 뽑았고, 이경순(1979), 정미실(1982), 유경숙(1984), 이은미(1986)에서 의복만족도 10문항을 택하였다.

이를 의류학 전공자 50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의미전달이 불충분하거나 같은 의미를 가진 것들을 추출하여 낸 뒤 이를 부산시내 성인 50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조사하여 문항간의 상관계수가 0.5이하이고 문항총점과 각 문항과의 상관계수가 0.75이상인 것을 선택하였다. 이들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0.9이상으로 점정되었다.

2. 조사대상 및 자료분석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1990년 9월 당시 부산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남·녀로 부산시 상주인구조사보고서(1989. 11월 보고)에 의해 연령별 인구를 조사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산시 전체의 만 20세 이상의 남·녀를 구(區)별 인구수를 파악하여 모집단 500명씩으로 간주하여 성인집단과 노인집단을 정하였다. 각 구의 인구크기에 비례한 집락표집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정확한 무선표집은 주민등록표에 의거하여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민등록표의 공개가 허용되지 않아 한 구(區)내에서 상업지역, 아파트지역, 주택지역으로 나누어 표집하였다. 구(區)내의

임의의 동(洞)을 찾아가 상가, 아파트, 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을 조사하고 나서 같은 구내의 지역적으로 떨어진 다른 동(洞)을 찾아서 같은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학교나 은행, 회사 등은 특성이 유사한 조사대상이 밀집할 가능성이 크므로 각 가정을 방문하여 한 사람만의 대상을 조사하였다. 표집대상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표집대상 분포표

연령 \ 성별	남	여	계
	만 20세~54세	496	495
만 55세 이상	459	446	905
계	955	941	1,896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따라 성인집단과 노인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분류의 기준 연령은 Newgarton의 노인집단 분류 중 Young-old의 시작 연령인 만 55세로 하여 만 54세까지를 성인집단, 만 55세이상을 노인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2) 자료분석

1. 인구통계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의 의복행동과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에 의한 경로분석을 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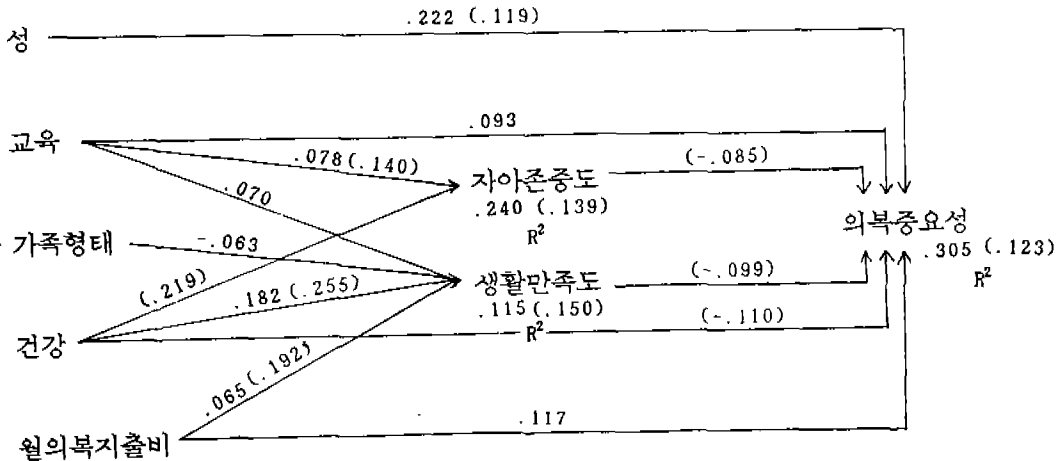
2. 연령과 성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령(2)×성(2)의 이원변량 분석을 하였으며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난 하위변인에 대해서는 schéffé's 사후 검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인구통계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의 의복행동과의 인과관계

독립변인의 의복행동변인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와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적 효과를 성인집단과 노인집단으로 비교 분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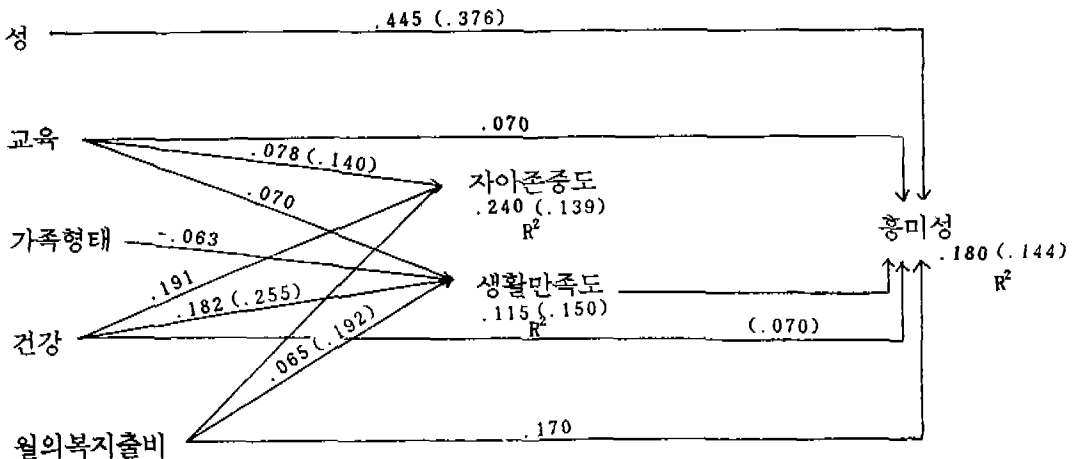
1) 의복 중요성의 인과성



(그림 1) 의복중요성의 인과모형

성인 집단에서 의복중요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는 성($\beta = .222$), 교육($\beta = .093$), 월의복지출비($\beta = .117$)이며 남자보다 여자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월의복지출비가 많을수록 의복을 사회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김을 알 수 있고 성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개변인을 거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노인집단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

는 성($\beta = .119$)과 건강($\beta = -.110$)이며 여자가 남자보다, 건강이 나쁘다고 지각할수록 의복을 중요하게 여기며 성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자아존중도를 매개로 하여 교육($\beta = .140$), 건강($\beta = .219$)이 자아존중도에 영향을 주고 자아존중도가 낮을수록 의복을 중요시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에 건강($\beta = .255$), 월의복지출비



(그림 2) 흥미성의 인과모형

* ()안의 값은 노인집단의 값

($\beta=.192$)가 영향을 주며 생활만족도($\beta=-.099$)가 의복 중요성에 영향을 주어 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의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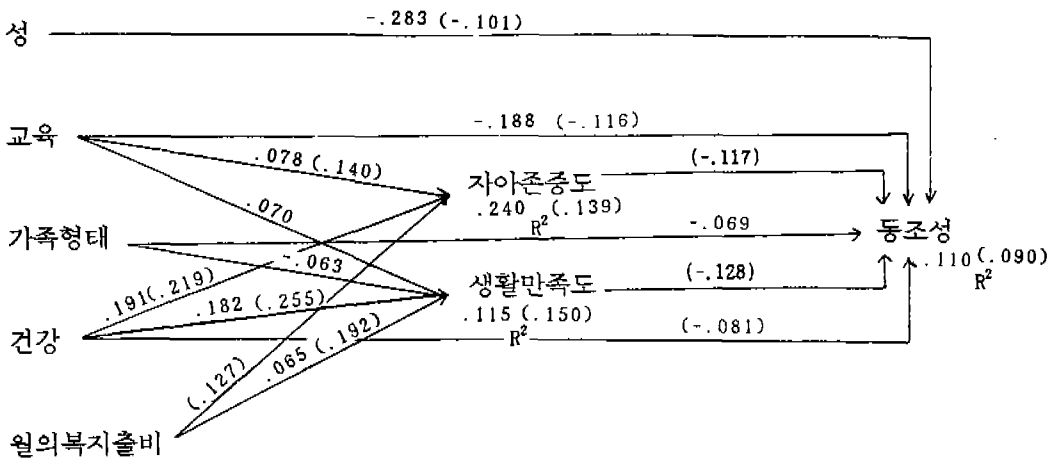
2) 흥미성의 인과성

성인집단에서 흥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는 성($\beta=.445$), 교육($\beta=.070$), 월의복지출비($\beta=.170$)이며 남자보다는 여자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의복지출비가 많을수록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의복의 조화로운 착용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개변인을 거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나타나지 않았다.

노인집단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는 성($\beta=.376$), 건강($\beta=.070$)이며 성의 영향이 더 크고 여자가 남자보다, 건강이 좋을수록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의복의 조화로운 착용에 대해 연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인을 거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3) 동조성의 인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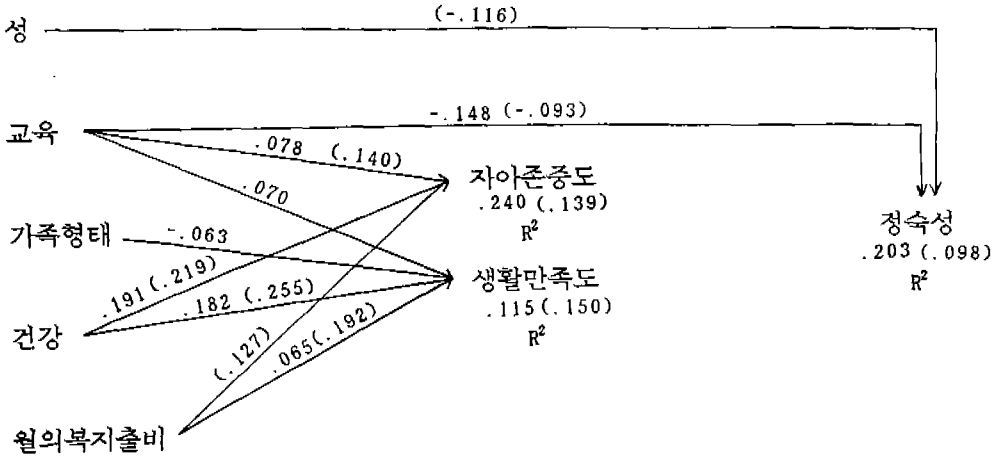
(그림 3) 동조성의 인과모형

성인집단에서 동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는 성($\beta=-.283$), 교육($\beta=-.188$), 가족형태($\beta=-.069$)이며 남자가 여자보다, 교육받은 기간이 적을수록, 가족형태가 대가족일수록, 준거 집단의 의복기준에 따르고자 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성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개변인을 거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노인집단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는 성($\beta=-.101$), 교육($\beta=-.116$), 건강($\beta=-.081$)이며 남자가 여자보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건

강이 나쁘다고 지각할수록 의복동조성이 높고 교육수준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 자아존중도는 교육($\beta=.140$), 건강($\beta=.219$), 월의복지출비($\beta=.127$)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자아존중도($\beta=-.117$)는 동조성에 영향을 주어 자아존중도가 낮을수록 동조성이 높게 나타났다. 생활만족도는 건강($\beta=.225$)과 월의복지출비($\beta=.192$)에 의해 영향을 받고 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동조성이 높게 나타났다.

4) 정숙성의 인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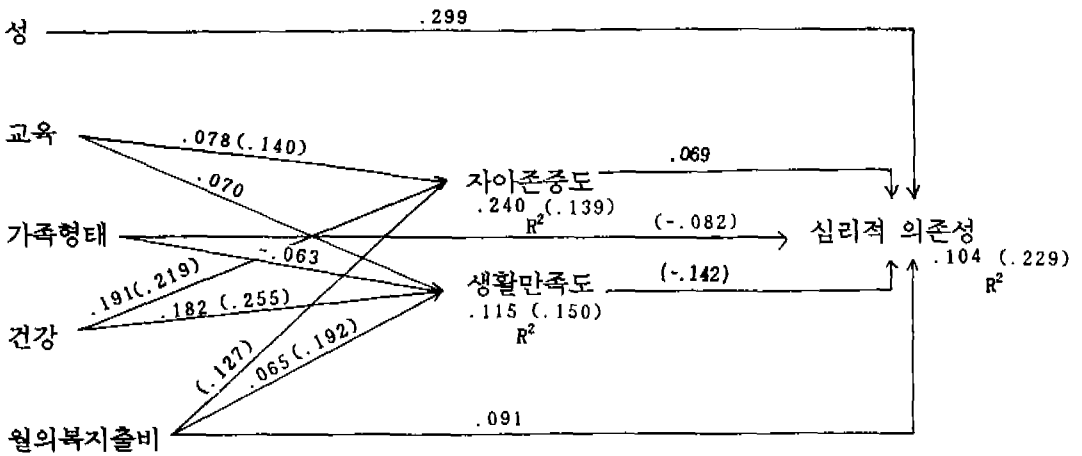
(그림 4) 정숙성의 인과모형

성인집단에서 정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는 교육($\beta=-.148$)이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보수적 의복태도를 나타냈다. 매개변인을 거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자보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보수적 의복태도가 나타났다. 매개변인을 거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노인집단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는 성($\beta=-.116$)과 교육($\beta=-.093$)이며 남자가 여

5) 심리적 의존성의 인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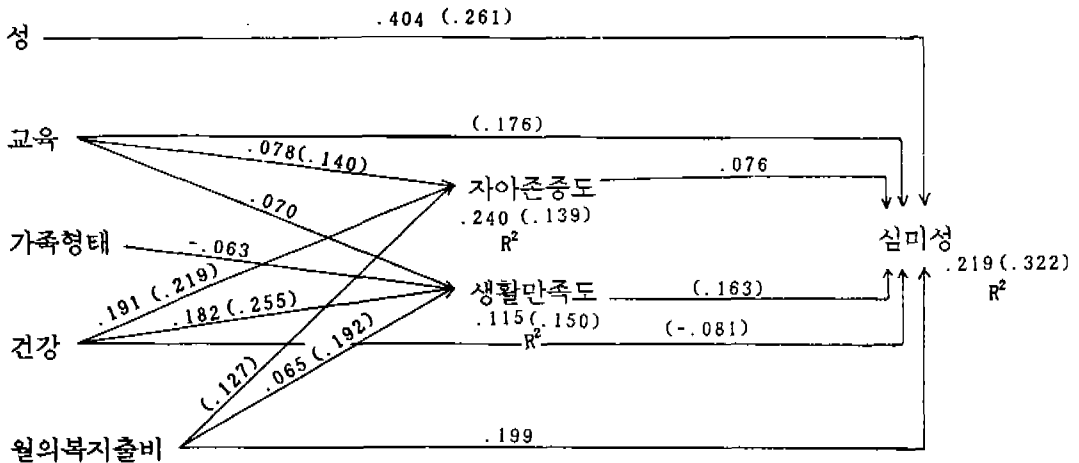


(그림 5) 심리적 의존성의 인과모형

성인집단에서 심리적 의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는 성($\beta=.299$), 월의복지출비($\beta=.091$)이며 여자가 남자보다, 월의복지출비가 많을수록 의복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자아존중도를 매개로 하여 교육($\beta=.078$), 건강($\beta=.191$)이 자아존중도에 영향을 주며 자아존중도($\beta=.069$)가 심리적 의존성에 영향을 주어 자아존중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의존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집단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는 가족 형태($\beta=-.082$)이며 대가족의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생활만족도는 건강($\beta=.255$)과 월의복지출비($\beta=.192$)에 영향을 받으며 생활만족도($\beta=-.142$)가 심리적 의존성에 영향을 주어 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심리적 의존성이 높게 나타났다.

6) 심미성의 인과성



(그림 6) 심미성의 인과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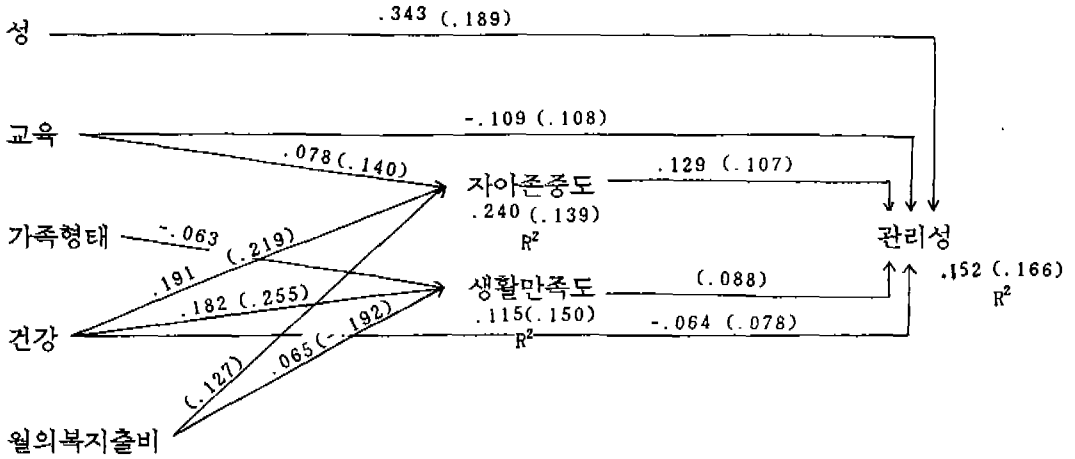
성인집단에서 심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는 성($\beta=.404$)과 월의복지출비($\beta=.199$)이며 여자가 남자보다, 월의복지출비가 많을수록 아름다운 외모를 위해 의복을 사용하고 성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자아 존중도를 매개로 하여 교육($\beta=.078$), 건강($\beta=.191$)이 자아존중도에 영향을 주며 자아존중도($\beta=.076$)는 심미성에 영향을 주어 자아존중도가 높을수록 심미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집단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는 성($\beta=.261$), 교육($\beta=.176$), 건강($\beta=-.081$)이며 여자가 남자보다,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이

나쁘다고 지각할수록 아름다운 외모를 위해 의복을 착용하고 성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생활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건강($\beta=.255$)과 월의복지출비($\beta=.192$)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생활만족도($\beta=.163$)가 심미성에 영향을 주어 생활만족도가 클수록 심미성이 높게 나타났다.

7) 관리성의 인과성

성인집단에서 관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는 성($\beta=.343$), 교육($\beta=-.109$), 건강($\beta=-.064$)이며 여자가 남자보다, 교육수준이 낮고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지각할수록 의복을 계획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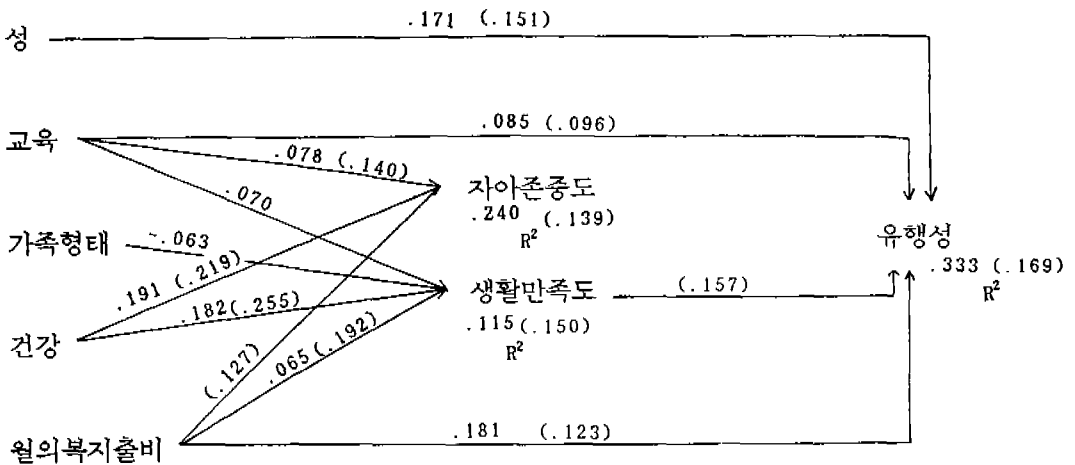
(그림 7) 관리성의 인과성

여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자아존중도를 매개로 하여 교육($\beta=.078$), 건강($\beta=.191$)이 자아존중도에 영향을 주며 자아존중도($\beta=.129$)는 관리성에 영향을 주어 자아존중도가 높을수록 관리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집단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는 성($\beta=.189$), 교육($\beta=.108$), 건강($\beta=.078$)이며 여자가 남자보다,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의복을 계획있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자아존

중도를 매개로 하여 교육($\beta=.140$), 건강 ($\beta=.219$), 월의복지출비($\beta=.127$)가 자아존중도에 영향을 주며 자아존중도 ($\beta=.107$)가 관리성에 영향을 주어 자아존중도가 높을수록 관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건강($\beta=.255$)과 월의복지출비($\beta=-.192$)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생활만족도($\beta=.088$)가 관리성에 영향을 주어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관리성이 높게 나타났다.

8) 유행성의 인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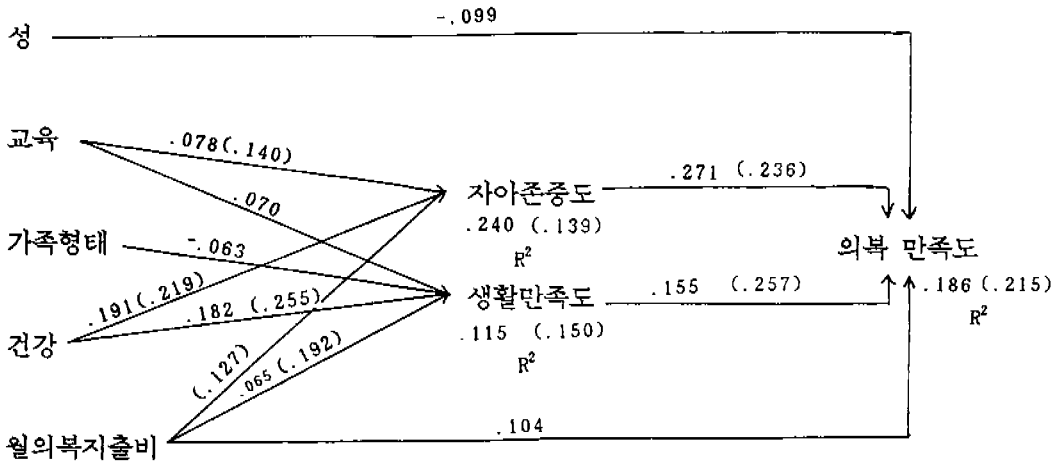
(그림 8) 유행성의 인과모형

성인집단에서 유행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는 성($\beta=.171$), 교육($\beta=.085$), 월의복지출비($\beta=.181$)이며 남자보다 여자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의복지출비가 많을수록 의복의 유행에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월의복지출비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

노인집단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는 성($\beta=.151$), 교육($\beta=.096$), 월의복지출비($\beta=.123$)이며 교육수준이 높고 월의복지출비가

많을수록 의복의 유행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건강($\beta=.255$)과 월의복지출비($\beta=.192$)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생활만족도($\beta=.157$)가 유행성에 영향을 주어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유행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 의복만족도의 인과성



(그림 9) 의복만족도의 인과모형

성인집단에서 의복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는 성($\beta=-.099$)과 월의복지출비($\beta=.104$)이며 남자가 여자보다, 월의복지출비가 많을수록 자신의 의복생활에 만족을 나타냈고 월의복지출비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자아존중도를 매개로 하여 교육($\beta=.078$), 건강($\beta=.191$)이 자아존중도에 영향을 주고 자아존중도($\beta=.271$)가 의복만족도에 영향을 주어 자아존중도가 높을수록 의복만족도가 높으며, 생활만족도에 교육($\beta=.070$), 가족형태($\beta=-.063$), 건강($\beta=.182$), 월의복지출비($\beta=.065$)가 영향을 주며 생활만족도($\beta=.155$)가 의복만족도에 영향을 주어 생

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집단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도를 매개로 하여 교육($\beta=.140$), 건강($\beta=.219$), 월의복지출비($\beta=.127$)가 자아존중도에 영향을 주고 자아존중도($\beta=.236$)가 의복만족도에 영향을 주어 자아존중도가 높을수록 의복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건강($\beta=.255$)과 월의복지출비($\beta=.192$)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생활만족도($\beta=.257$)가 의복만족도에 영향을 주어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집단에 있어서, 선행연구들^{16)·17)·18)}이 영향을 보이지 않은 것은 선행연구들의 대상이 주부였고 본연구는 성인 남·녀를 포함한 것이므로 대상의 차이로 여겨진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동조성이 높아지는 것은 의복에 대한 지식이 적어 자신감의 부족으로 인한 현상이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숙성이 낮은 것은 정숙성이 낮다기보다는 정숙성에 신경을 덜 쓰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는 자신감과 관계하는 것으로 자신감이 높으면 자신이 눈에 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월의복지출비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관련이 높은 변인으로 수입이 많을수록 흥미성·심미성·심리적 의존성이 높아지는 선행의 연구¹⁸⁾와 유행성에 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¹⁹⁾도 지지하였다. 그러나 월 의복지출비의 경우, 지출비가 증가되므로 의복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의복행동의 경향에 따라 의복지출비가 영향을 받는 상호관련의 관계가 성립되므로 상호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자아존중도의 의복행동에 대한 영향은 자아존중도가 높을수록 심미성과 관리성이 높고,^{20)·21)} 성인 남자에서 자아긍정이 강할수록 의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나²²⁾ 본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성인기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의복

행동을 설명할 수 없으며 생활만족도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건들, 즉 역할만족,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 등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관련성을 알아 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노인집단에 있어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의복에 있어서 동조성이 높은 것은 성인기와 같은 경향을 보였고, 건강상태가 좋다고 지각할 경우에 사회활동이 많아지고 의복의 중요성과 흥미성이 많아졌고 의복구입과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여겨졌다.

월 의복지출비는 새로운 의복의 구매와 관련되어 유행과 밀접함을 알 수 있었다. 자아존중도와 생활만족도는 정숙성을 제외한 모든 의복행동에 영향을 주고 이는 건강이라는 변인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서 선행연구를 뒷받침 하였고^{23)·24)} 성인기에 비해 심리적 변인이 노인기에는 큰 영향을 주어 노인의 의복이 중요한 심리적 역할을 한다는 결과²⁵⁾도 뒷받침하였다.

2. 연령과 성의 의복행동에 대한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표 2〉은 연령과 성에 따른 의복행동변인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 분석한 결과이다.

연령에 따른 주효과가 있는 변인은 흥미성, 동

16) 이인자, 주부의 의상행태에 대한 10대 자녀들의 반응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연구보고, 제 1집, 1977, p.35~50.

17) 김정호, 사회계층과 의복행동-가정주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8.

18) 김순구,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고교생 남·녀 비교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19) 김순구·박정순, 자아존중과 의복행동간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4(4), 1990, p.305~31.

20) Humphrey, C., Mary Klaasen, M. & ANNa, M. Creekmore, Clothing and Self-concept of Adolescents. J. of Home Economics, 63(4), 1971, p.246~250.

21) 김순구·박정순, Ibid, p.305~31.

22) 이경손, Ibid, 1979.

23) Kyriakos & Harry W.M., Ibid., p.8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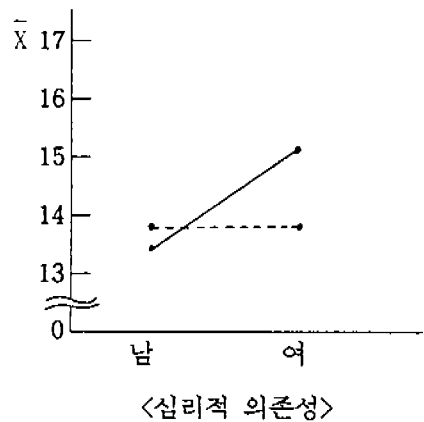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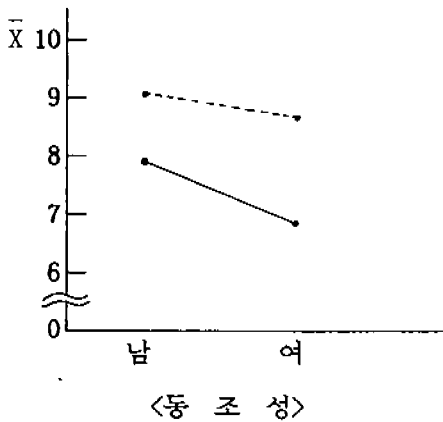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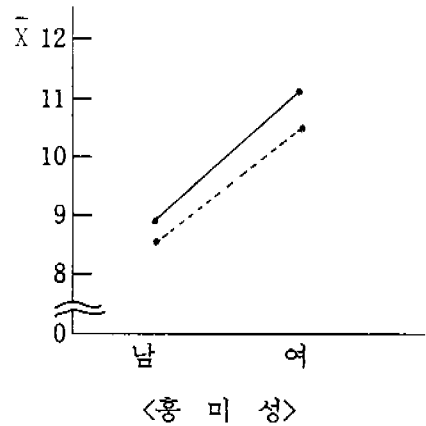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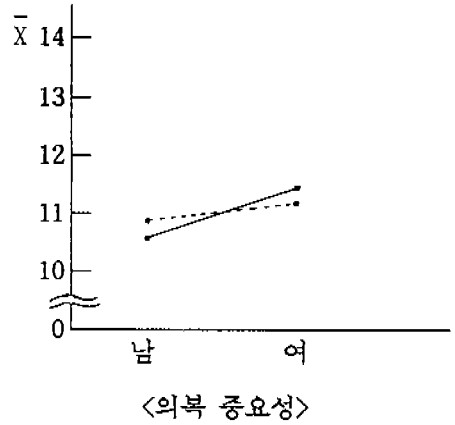
24) 장상희, Ibid., p.4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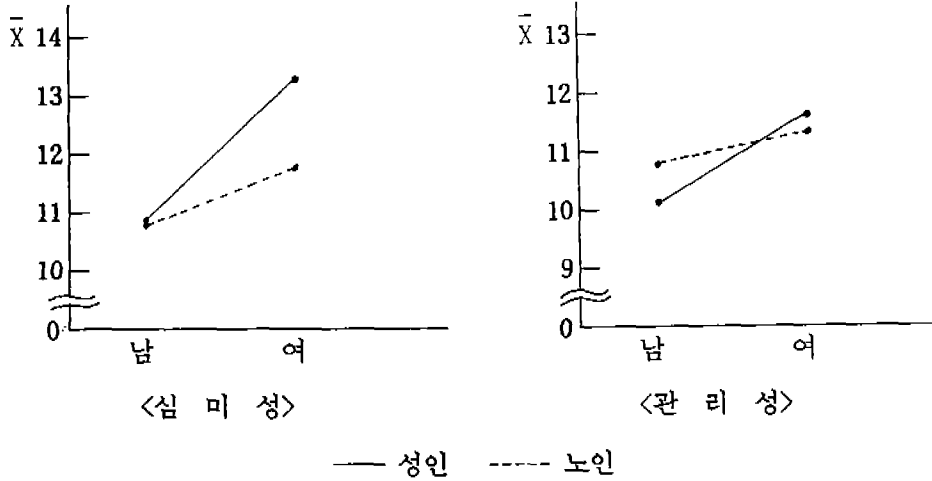
25) 박재욱, 노인의복연구의 업적에 관한 조사 연구, 과학논총(계명대학교), 1989, 10, 42.

〈표 2〉 연령과 성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연령·성 의복 행동	연 령		성		상호작용효과 (연령×성)
	성인	노인	남	여	
의복중요성	\bar{X}	10.98 11.01	10.66 11.34		6.955 ^{***}
	F	.085(N.S)	44.819 ^{***}		
흥 미 성	\bar{X}	10.04 9.47	8.70 10.86		8.393 ^{***}
	F	23.881	360.004 ^{***}		
동 조 성	\bar{X}	7.42 8.92	8.48 7.79		19.697 ^{***}
	F	267.260 ^{***}	55.371 ^{***}		
정 숙 성	\bar{X}	9.97 11.29	10.67 10.53		3.600(N.S)
	F	134.963 ^{***}	1.245(N.S)		
심 리 적 의 존 성	\bar{X}	14.21 13.75	13.51 14.48		41.141 ^{***}
	F	13.350 ^{***}	59.969 ^{***}		
심 미 성	\bar{X}	12.16 11.38	8.70 10.86		35.348 ^{***}
	F	38.957 ^{***}	179.464 ^{***}		
관 리 성	\bar{X}	10.85 11.22	10.50 11.56		31.090 ^{***}
	F	16.094 ^{***}	127.015 ^{***}		
유 행 성	\bar{X}	10.86 10.14	10.14 10.91		3.180(N.S)
	F	28.310 ^{***}	32.814 ^{***}		
의복만족도	\bar{X}	13.35 13.26	13.63 12.97		.309(N.S)
	F	.492(N.S)	27.955 ^{***}		

p<.01 *P<.001





(그림 10) 연령과 성의 상호작용 효과

조성, 정숙성, 심리적 의존성, 심미성, 관리성, 유행성이며 의복중요성과 의복만족도는 없었다. 주효과가 있는 변인들 중에서 흥미성, 심리적 의존성, 심미성, 유행성은 성인이 높았고 동조성, 정숙성, 관리성은 노인이 더 높았다.

성에 따른 주효과가 있는 변인은 의복중요성, 흥미성, 동조성, 심리적 의존성, 심미성, 관리성, 유행성, 의복 만족도이며 정숙성만이 없었다. 주효과가 있는 변인들 중에서 의복중요성, 흥미성, 심리적 의존성, 심미성, 관리성, 유행성은 여자가 높았고, 동조성과 의복만족도는 남자가 더 높았다.

의복 중요성, 흥미성, 동조성, 심리적 의존성, 심미성, 관리성의 6변인이 연령과 성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이를 도식화하면<그림 10>과 같다.

<그림 10>에 의하면 1) 의복 중요성은 연령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의복의 중요성은 여자가 남자보다 좀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의 집단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과 성을 이원변량분석한 결과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2) 흥미성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성인이 노인

보다 높았고 성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성인집단과 노인집단 모두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약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3) 동조성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크거나 노인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성에 따른 차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성인집단이 노인집단에 비해 차이의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어느정도의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4) 심리적 의존성은 연령과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자의 경우는 노인이 높고 여자의 경우는 성인이 높게 나타났고 차이의 폭도 크게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간에는 성인의 경우가 노인에 비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완전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5) 심미성은 연령과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른 차이는 남자의 경우는 크지 않으나 여자의 경우는 차이의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성에 따라서는 성인과 노인 모두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어느정도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6) 관리성은 연령과 성에 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자의 경우에 연령에 따른 차이의 폭이 매우 크며 노인이 성인보다 높고 여자의 경우는 적은 차이를 보였으나 모두 성인이 노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에 따른

차이는 성인의 경우 큰 차이를 보였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높고 노인의 경우도 차이의 폭은 적으나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의 완전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변인들에 대하여 성인남자집단, 성인여자집단, 노인남자집단, 노인여자집단으로 분류하여 개별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eff 사후검증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 개별 집단간의 차이

집단 의복행동 변 인	성인	성인	노인	노인	F값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의복중요성	10.5171	11.4505	10.8126	11.2108	17.2784 ^{***}
scheffé	a	b	a	b	
흥 미 성	8.8065	11.2788	8.5773	10.3901	131.1773 ^{***}
scheffé	a	c	a	b	
동 조 성	7.9536	6.8909	9.0414	8.7870	141.6554 ^{***}
scheffé	b	a	c	c	
심리적외존성	13.3427	15.0889	13.6841	13.8139	38.2802 ^{***}
scheffé	b	a	a	a	
심 미 성	10.9919	13.3253	10.9499	11.8274	84.9648 ^{***}
scheffé	a	c	a	b	
관 리 성	10.0605	11.6323	10.9651	11.4798	57.8673 ^{***}
scheffé	a	c	b	c	

<표 3>에 의하면 의복중요성은 남자집단과 여자집단으로 대별되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여자집단이 남자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흥미성은 남자집단은 성인과 노인간에 유사한 차이가 없고 성인여자집단이 가장 높고 노인여자집단, 남자집단의 순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동조성은 노인집단은 남자와 여자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노인집단이 가장 높고 성인남자집단성인 여자 집단의 순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심리적 외존성은 성인여자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장 높고 성인남자집단, 노인남자집단, 노인여자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심미성은 남자집단은 성인과 노인간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고 성인여자집단이 가장 높고 노인여자집단, 남자집단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관리성은 여자집단은 성인과 노인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여자집단이 가장 높고 노인남자집단, 성인남자집단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의복 중요성에서 성인은 사회활동의 역할 수행을 위해, 노인은 신체보완의 수단으로 각기 다른 이유에서 의복이 중요하리라 여겨지며 의복에 대한 흥미는 남자가 다른 일에 대한 관심이 많은 반면에 여자는 사회활동이나 가정에서 여자다움을 나타내는 위치에 있으므로 그 흥미가 더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의복동조성은 여자의 경우 성인기에 개성이 강했던 만큼이나 노인기에 동조심리가 강하게 나타나고 의복의 심리적 영향은 남자의 경우 노인기에 이르면 외모로서 자신을 나타낼 기회가 줄어들고 의복의 수단 중에서 미적 표현의 수단보다 결점보완의 수단이 상대적으로 강해져 심리적 영향을 덜 받게 된다고 본다.

그래서 의복에 대한 심리적 외존성은 성인여자집단이 높고 다른 집단들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 여겨진다.

의복의 미적 측면은 남자일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무관하게 나타나 우리 사회 문화권에서의 두드러진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라 생각된다.

의복관리의 역할은 역시 여자가 주로 담당하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활동이 왕성하여 매사에 자신이 있었던 남자는 성인기에는 의복에 대한 중요성도 흥미도 적으며 의복착용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노인기에 이르러 사회활동에서 물러남으로 인해 외모와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감소되어 성인에 비하여 의복을 중요시여김에 따라 의복착용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도 크고 외모의 관리에도 관심이 높아졌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여자일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자와는 달리 가사일에 대

한 자신의 역할이 크게 차이 나지 않고 다만 의복이 미의 표현수단에서 외모상의 결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바뀌므로 의복의 중요성과 흥미가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특히 심미적인 면이 감소된 것은 의복구매와 관리가 자녀들이 대행하는 경우가 늘어나므로 전반적인 의복행동이 감소된 현상으로 여겨진다.

의복의 동조현상이 성에 관계없이 노인기에 크게 높아진 것은 모든 면에서 자신감의 감소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성인집단에 있어서는

성·교육·월의복지출비는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여자가 남자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의복지출비가 많을수록 의복행동참여도가 높다. 생활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의복행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의복만족도와는 의미있는 관계가 있다. 자아존중도는 심리적 의존성, 심미성, 관리성, 의복만족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도가 높게 나타난 성인기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사회적 참여기회가 많다. 그러므로 의복의 미적·관리적 측면을 중요시여기게 되고 T.P.O에 맞는 의생활을 통하여 의복만족을 구한다.

둘째, 노인집단에 있어서는

성·교육·건강이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여자가 남자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의복행동참여도가 높다. 자아존중도는 의복중요성, 동조성, 관리성, 의복만족도만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나, 생활만족도는 의복행동 전반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노인기는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져서 전반적인 의생활 태도가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노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노인기의 역할에 대한

만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사회참여기회가 많아져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생활에 대한 활력소를 제공 하므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세째, 성인집단과 노인집단 모두 의복행동은 성차를 보였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의복중요성, 흥미성, 의복착용에 따른 심리적 의존성, 심미성, 관리성 및 유행성이 높다. 이에 반하여 남자는 동조성과 의복만족도가 여자보다 높다. 이는 가정에서 의생활을 여자가 주도하며, 남자의 의복기대가 여자보다 낮은데서 기인한다.

네째, 연령과 성에 따른 집단간에는 상호작용이 있었다. 노인여자집단은 성인 여자집단에 비해 의복중요성, 흥미성 및 심리적 의존성이 낮는데 반해, 노인남자집단은 성인남자집단보다 이들 특성이 오히려 높다. 이는 노인기남자에 있어서 사회적 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의생활참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성인여자집단은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의복동조성이 낮았다. 이는 이 집단이 다른집단에 비해 의복의 개성추구가 높음을 반영하므로 의복상품의 차별화전략에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다. 또한 노인집단은 성인 집단에 비해 의복동조성이 두드러지게 높다. 따라서 노인집단을 위한 의복상품 기획에 있어서는 개성추구보다는 타요인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결론에 의하면 성인 남·녀 집단과 노인 남·녀 집단의 네 집단에서 각각의 특징차이를 볼 수 있으며 이는 각 집단의 의복선택 기준이 다를 것을 보여주고 있다. 후속 연구로는 연구대상의 범위를 대도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여 다루어져야 하겠고 의복 행동을 보다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다른 심리적 변인들을 밝혀냄으로써 각 집단들의 의복을 이용한 자아증진과 의복상품구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참고문헌

1. 강경자, 서영숙, Maslow의 기본적 욕구가 의복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학회지, 13(1), 1989, p.1~12.
2. 고은기, 학령기 아동의 의복행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3. 김선화, 성별, 연령별, 사회계층별 의복행동과 가정의 가치지향성과의 상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4. 김순구,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교생 남·여 비교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5. 김순구·박정순, 자아존중과 의복행동간의 상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4(4), 1990, p.305~313.
6. 김애리,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성취 기대와 지속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7. 김원옥, 직업 여성의 의복행동과 직업만족에 관한 분석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8. 박은주, 직장남성의 의복행동과 지각향성 및 직업만족도와와의 상관연구-정신노동자(white-collar)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9. 유경숙, 노년층 여성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서울·광주거주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10. 윤진, 성인·노인심리학, 중앙적성 출판사, 1985.
11. 이강운, 도시 중년기 주부의 자아존중감 및 고독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12. 이경순, 성인남자의 자아개념과 의복행동과의 상관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13. 이은미, 생산직 근로여성의 자아수용성과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14. 임숙자·임치진, 노년기 여성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간의 상관성 연구, 한국복식학회, 10, 1985, p.51~62.
15. 임춘봉, 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의상행위와의 상관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4.
16. 장상희, 대도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부산시 대상으로-, 부산대학교 사회조사연구, 1, 1983, p.49~64.
17. 정미실, 남자 중·고등학생의 의복행동과 지각향성과의 상관 연구-의복 동조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18. 정원식, 자아개념검사, 코리안 테스트 센터가, 1968.
19. 정희용·임숙자, 노년기 여성의 자아지각과 의복관심과의 상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2(2), 1988, p.333~342.
20. 최순남, 현대 사회와 노인복지, 서울:홍익제, 1984.
21. 최혜선, 의복행동과 사회적 안전감-불안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서울시내 여고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22. 藤原康晴, 女子大生の衣服の關心度と自尊感情との關係, 日本家庭學雜誌, 33(10), 1982, p.548~552.
23. Coopersmith, S, Studies in self-esteem, Scientific American, 218(2), 1968, p.95~100.
24. Creekmore, A.M., Clothing and Personal Attractiveness of Adolescents Related to Conformity Clothing Mode, Peer Acceptance, and Leadership Potential, Home Economics Research J., 8(3), 1980, p.203~215.
25. Drake, M.F. & Ford, I.M., Adolescent Clothing and Adjustment, Home Economics Research J., 7(5), 1979, p.283~291.

26. Ford, I.M. & Drake, M.F., Attitudes toward Clothing, Body and Self : A Comparison of two groups, Home Economics Research J., 11(2), 1982, p.189~196.

27. Holloman, L.O., Self-esteem, Locus of Control and Demographic Variables as Influencing Factors on the Clothing of Black People, A dissertation Doctor of Philosophy, Michigan State University, 1981.

28. Kefgen, M. & Touchies, S.,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2nd ed.), New York : Macmillan Pub. Co., 1976.

29. Perry, M.O, Schutz, H.G. & Rucker, M. H., Clothing Interest, Self-actualization and Demographic Variables, Home Economics Research J., 11(3), 1983, p.280~288.

30. Rosenberg, M., Conceiving the Self, N.Y. : Basic Books, 1979.

31. Spreitzer, E. & Snyder, E., The Relative Effects of Health and Income on Life Satisfaction, The International J.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0, 1979, p.282~288.

32. Winakor G., Canton B. & Wolins L., Perceived Fashion Risk and Self-esteem of Males and Females, Home Economics Research J., 9, 1980, p.45~56.

ABSTRACT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Clothing Behavior

— Age and Sex in Adult and Elderly Groups —

Soon—Ku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
College of Home Economics,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variables and clothing behavior with reference to sex difference in adult and elderly groups.

The clothing behavior was measured by Clothing importance, Interest, Conformity, Modesty, Psychological dependence, Aesthetics, Management, Fashion, and Clothing satisfaction. Psychological variables in this study were self-esteem and life-satisfaction, and demographic variables were sex, education, family type, health, and clothing expenditure.

The hypotheses set up in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a causal relationship will exist between 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variables and clothing behavior in both adult and elderly groups.

Second, in clothing behavior a main effect will exist between male and female groups and between adult and elderly groups.

Third, in clothing behavior and interaction effect will exist between sex and ag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96 adult males, 495 adult females, 459 elderly males, and 446 elderly females residing in Pusan area.

The material used in this study to measure the clothing behavior was a 5-point rating scale with 31 items in 9 sub-areas developed by the author. The data were collected by five investigators well trained in interview beforeh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rom the results and discussions of this study :

First, sex, education, and clothing expenditure has a causal relationship with clothing behavior in adult group. Females, higher-educated group, and the group with more clothing expenditure reveal higher concern for clothing. In adult group life-satisfaction does not have any causal relationship with clothing behavior in general except for clothing satisfaction. Self-esteem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Psychological dependence, Aesthetics, Management, and Clothing satisfaction in the group.

Second, in elderly group sex, education, and health significantly contribute to clothing behavior. A concern for clothing is higher in female, higher-educated group, and the group with higher perception in health. Self-esteem has a causal relationship with Clothing importance, Conformity, Management, and Clothing satisfaction, whereas life-satisfaction

has a strong causal relationship with clothing behavior in general.

Third, in both adult and elderly groups a significant sex difference exists in clothing behavior. Females show higher concern for Clothing importance, Interest, Psychological dependence, Aesthetics, Management, and Fashion than males. On the other hand, males reveal higher concern for Conformity and Clothing satisfaction than females.

Fourth,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exists between age and sex, while elderly females show lower concern for Clothing importance, Interest, and Psychological dependence than adult females, elderly males show higher concern for the same sub-areas of clothing behavior than adult males. This signifies the increase of the concern for clothing in elderly males with the decrease of social activities.

Fifth, adult female group reveals lower Conformity in clothing compared with the other groups, which signifies the higher individuality in clothing behavior. On the other hand, the elderly groups show significantly higher Conformity than the adult groups. This signifies the importance of the consideration for the variables other than individuality in clothing behavior for the group.